

북스

매춘부 경쟁상대는 바로 '일반여성'

어린이 책꽂이



▲엄마의 특별한 선물=엄마의 따뜻한 사랑과 일상의 작은 행복이 듬뿍 담긴 그림책이다. 작가 한태희씨가 10년 전 자기의 첫째 딸이 유치원 다닐 때 엄마·아빠들이 모여 아이들을 위해 연극 '혹부리 영감'을 공연한 경험을 바탕으로 썼다. 우왕좌왕 연극을 준비하는 과정들을 흥미진진하게 그렸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모하메드의 운동화=전쟁과 테러의 한복판인 중동 어느 지역에 사는 소년 모하메드는 한국의 '식'이 내다버린 운동화를 소중하게 간직한다. 축구 선수를 꿈꾸던 모하메드는 어느날 고철을 줘다가 폭탄이 터지는 바람에 한쪽 다리를 잃고 만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평화의 가치를 조용하지만 감동적이다. <북폴·8천500원>



▲노란 우체통=세상을 떠난 아빠와 열세 살 딸 '숨이'를 이어주는 노란 우체통의 가슴 훈훈한 이야기다. 세상을 떠나기 전 당당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많은 편지를 써놓은 아빠와 미래의 나에게 편지를 쓰는 숨이의 모습이 사랑스럽다. 이 노란 우체통은 실제로 경북 봉화군에 있다. <처음주니어·9천500원>



▲용이 되기 싫은 이상한 이무기 광철이=이무기 '광철이'는 매우 특이하다. 다른 이무기들은 하루라도 빨리 용이 되려고 '등운문 서당'에서 바쁜 하루를 보낸다. 하지만 광철이는 용이 되기 싫다며 걸핏하면 결석을 하고 미니리깅을 쏜다. 모두가 용이 되려고 안달인데 광철이는 왜 용이 되기 싫다는 걸까? <주니어랜덤·8천500원>



▲기이한 아이=지나간 베스트셀러 '완득이'로 청소년 소설 붐을 이끈 김려령씨의 두 번째 청소년 소설. 갑작스럽게 자살한 열한살의 아이 '천지', MP3를 사달라며 잔에 없이 때를 쓰던 천지가 목숨을 끊은 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와 천지의 죽음을 둘러싼 가슴 아픈 사연과 진실이 하나 둘 밝혀진다. <창비·8천500원>



▲찰리의 시골벽적 하룻밤=제2차 세계 대전과 영동하지만 사랑스런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영국 작가 힐러리 매케이의 '말썽왕 찰리 시리즈'의 첫 번째 판이다. 언제 어디서든 시골벽적 소란을 피우는 말썽꾸러기 찰리의 유쾌하고 발랄한 일상이 시골벽적하게 펼쳐진다. <시공주니어·6천원>



▲열세 살 소녀 핑크=인기스타를 꿈꾸는 소미, 어느 날 길거리에서 캐스팅되어 떠오르는 샛별이 되더니 마침내 가요계에 돌풍을 일으키며 최고의 인기스타가 된다. 연예인이 된 핑크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즐기려고 진지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일깨워 준다. <기문비어린아·8천900원>

▲팝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우리 구전 옛이야기 가운데 '늑두영감(팝이 영감)'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고쳐썼다. 늑두영감이 농작물을 먹는 토끼를 잡고 토끼가 피를 내어 도망간다는 이야기의 핵심은 그대로 살리면서 토끼의 성격을 장난기 많고 친절한 아이처럼 재미나게 그렸다. <천둥거인·9천800원>

슈퍼 과짜경제학

스티븐 레빗 지음



질문 하나, 같은 액수의 용돈을 받을 수 있다면 의붓아버지 딱치는 일을 도와 어주는 게 좋을까, 친아버지 장차 패는 일을 거드는 게 나을까. 심정적으로야 친아버지 편드는 게 당연하겠지만, 경제학자들은 의붓아버지를 도우라고 조언한다. 인센티브(용돈)는 동일하지만, 친아버지를 따랐던 도개남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 어쩌면 세상은 이처럼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인센티브와 이를 방해하는 '외부효과(도개남)'의 끊임없는 대결인지도 모른다.

'과짜경제학'으로 학계의 '인디애나 존스'로 떠오른 스티븐 레빗 시카고대 교수와 스티븐 더브너 컬럼비아대 교수가 더 다양한 사례를 들고 돌아왔다. '사람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는 게 '과짜경제학'의 논리였다면, 4년 만에 내놓은 '슈퍼 과짜경제학'은 이를 방해하는 외부효과를 집중

적으로 다룬다. 저자들은 이 '인센티브-외부효과'라는 틀에 매춘·테러·환경오염 같은 주제들을 틀어넣어, 경제활동의 이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누군가의 생산활동이 다른 이에게 손실을 가져주는 것'이라는 외부효과라는 용어 말고는 골치 아픈 경제용어는 등장하지 않는다.

저자들이 시카고의 매춘부들을 통해서 본 '인센티브-외부효과'를 보자. 요즘 매춘부들의 수입이 엄청났다. 주당 평균 350달러를 벌어들인다는 이는 100년 가까이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이러한 매춘부들의 수입 감소에는 수요의 급감이 큰 영향을 미쳤는데, 매춘부를 위협하는 가장 큰 경쟁상대는 다른 아닌 '일반 여성'들이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미국 남성 가운데 적어도 20%는 첫 경험을 매춘부와 한 데 반해 요새는 그 수치가 5%로 줄었다. 남자와 거기에 무료로 섹스하는 여성들이 많아진 것이다. 혼전 섹스가 매춘의 대체물이 된 셈이다. 시카고 매춘부들에게서도 '가격 차별' 정책을 쓴다. 그들은 백인보다 흑인 손님에게 화대를 적게 받는다. 화대를 흥정하려는 경향이 있는 흑인들에게는 남들할 만한 가격을 단호하게 제시해 더 깎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부유한 백인들에게는 직접 가격을 제시하게 해 기대 이상의 화대를



'슈퍼 과짜경제학'은 기존의 경제학 틀이 아닌 '인센티브-외부효과'라는 틀에 매춘·테러·환경오염 같은 주제들을 틀어넣어 경제활동의 이면을 흥미진진하게 풀어낸다. 영화 '라스베가스를 떠나며' 한 장면.

내게 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시각을 보여준다. 그들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소가 퇴세검질을 해 내뿜는 메탄가스가 자동차보다 25배나 강한 온실효과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메탄가스를 내뿜지 않는 캥거루 고기를 먹거나 길고 가는 호스 끝에 풍선을 매

달아 하늘로 향하게 한 뒤 극소량의 이산화황을 뿌림으로써 지구 기온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0월 출간되자마자 폴 크루그먼 등 저명 경제학자들이 이 책의 내용을 놓고 온라인 논쟁을 벌일 정도로 화제가 됐고, 인터넷 서점 베스트셀러에 이름을 올렸다. <웅진지식하우스·1만3천원> /김주정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고전 속 공주, 발칙한 재해석

'셀러브리티'

정수현 지음



상큼하고 발칙한 칙릿소설의 대표주자 정수현(28)씨의 신작 장편소설 '셀러브리티'가 나왔다.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에스21' 문화월간 '내'에 연재되어 매 회당 1천 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작품을 엮은 것. 정씨는 소설에서 21세기 한 시대를 풍미하는 트렌드 아이코닉 '셀러브리티'를 내세우고 있다.

고전 동화 속에 연약하고 아름다운 멋진 왕자님의 사랑을 받는 신데렐라 같은 공주가 있었다면 21세기에는 새로운 스타일을 리드하는 트렌드 세터인 '셀러브리티'가 등장했고 그들의 영향력은 점차 커져 그들을 동경하는 셀러브리티 워너비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셀러브리티, 그들은 한마디로 21세기의 공주라고도 할 수 있다.

소설에서는 당당하게 자신의 꿈과 사랑을 찾아가는 바이현이라는 스물여섯 여자의 이야기가 상큼 발랄하게 펼쳐진다. 고전 동화 속 공주들에 대한 발칙한 재해석이 돋보인다.

특히 각 챕터 제목마다 등장하는 실제 셀러브리티들(린제이 로한, 패리스 힐튼, 비토리아 베킹, 안젤리나 졸리, 제니퍼 애니스톤, 다이애나 바, 오드리 헵번)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소설의 주인공 이현이 쓰는 셀러브리티 특집 기사 안에 녹여 흥미진진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름·1만2천700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우리 사회 중요한 '소통교과서'

나는 당신의 말할 ...

정관용 지음



SBS 라디오 '뉴스 대행진', KBS 라디오 '열린 토론'과 KBS TV '생방송 심야토론' 등 시사·토론 프로그램을 맡아 진행했던 시사평론가 정관용(47·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씨가 토론을 주제로한 책 '나는 당신의 말할 권리를 지지한다'시대의 종말을 선언한 정관용의 소통 제안'을 펴냈다.

책은 팽팽한 양 극단의 논쟁이 12년 동안 균형을 이룬 정관용이 토론을 이끌어온 정치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에 소통이 부재한 원인과 배경을 객관적 시각으로 분석·진단하고, 건강한 공동체의 미래를 제안하는 명쾌한 '소통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책은 총 4개의 장으로 구성했다. 제1장 '방송토론 잊어버리기'에서는 토론의 필요충분조건과 방송토론의 한계에 대해 논하고 있으며 2장에서 우리사회의 제대로 된 토론을 하지 못하고 왜 소통이 안되는지 등 대한민국 토론의 현주소를 분석했다.

또 3장에서는 한국의 토론과 소통하는 주역들 즉, 한국정치와 한국 언론의 현재 모습을 구체적으로 살펴봤으며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소통하는 대화의 방법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있다. 아울러 진행자가 방송토론의 준비부터 실천까지 고려해야 할 점과 효과적인 설득을 위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록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다. <위즈덤하우스·1만1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스피드·도박에 빠진 작가 이야기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

사강 지음



'슬픔이여 안녕'의 작가 프랑수아즈 사강의 에세이 집 '고통과 환희의 순간들'이 나왔다.

19세의 나이에 '슬픔이여 안녕'으로 혜성처럼 등장해 '한달 후, 일년 후' '마음의 파수꾼' 등을 연속 히트시켰던 사강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작가다.

작품 뿐 아니라 두번의 이혼과 결혼, 도박, 약물중독 등 자유분방한 삶을 살면서 '사강 스캔들'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기도 했던 그녀의 진실한 내면 이야기가 담긴 이 책은 그녀가 49세에 발표한 첫 번째 에세이집이다.

책은 그녀가 좋아했던 것들과 사람들에 대한 10편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

목숨까지 잃을 뻔 했던 자동차 경주에 대한 애착을 그린 '스피드', 집을 담보로 빚을 내고 파산하기도 했지만 멈출 수 없었던 '도박', 희곡작가로 연출가로서의 삶을 그린 '연극', 탕방과 카피 등 그녀에게 문화적 영감을 준 작품 등을 소개한 '독서'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전설로 남은 재즈 보컬리스트 빌리 홀리데이, '시민케인'의 감독 오손 웰즈와의 추억, 작가 테네시 윌리엄스, 발레리노 루돌프 누레예프와의 만남 등도 소개하고 있다.

<소담출판사·1만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Table with multiple columns for election results, including '공인중개사: 강영희', '(주)국민법률경매', and various regional election data.